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 논술시험(인문 2)

< 2015. 11. 14(토) 12:40 인문계 2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 <제시문 1>

모든 사회에는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는 사회적 사실들이 있다. 이를테면 개인이 형제, 배우자,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때 그 개인이나 그의 행동과 별도로 실제로 존재하는 법과 관습 등에 의해 규정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개인의 정서에 맞거나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이다.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밖에 있는 그것들 따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상징체계, 빛을 내거나 갇기 위한 금융 체계, 상업적인 관계를 위한 신용 도구,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행 등 사회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와 사고는 개인 외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강요되거나 강제되기도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에 동의할 때조차도 그 강제적인 힘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사실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 <제시문 2>

한 개인과 그 개인의 행위를 최소한의 단위인 ‘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행위 외의 모든 것은, ‘의미와는 무관한’ 자연의 사건처럼, 유의미한 행위의 조건 내지 이 행위의 관련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에 불과하다. 개인은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이며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의식은 개인적인 것이다. 베버는 집합의식을 가설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합의식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적과 관련된 수단의 검토, 이 목적의 선택, 결과의 예측, 결정 그리고 실행의 결단을 포함하여 의미 관계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모두가 개인의 의지에 속한다.

## <제시문 3>

분명한 것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사람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없는 사람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거나 사람을 넘어선 존재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이 시간상으로는 국가에 앞서지만, 논리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 앞선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앞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두 명제의 증거는, 국가는 전체며 개인은 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은 고립되어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므로 전체 국가에 모두 같이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만이 스스로 만족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 타인과 더불어 정치적 공동체의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 즉 전체의 일부일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 사람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 <제시문 4>

로크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사회의 구속을 당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정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생명·자유·재산 등의 자연권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이 정부에 권력을 일부 신탁하였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위임에 반하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며 그 목적에 반할 때에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제시문 5>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물 유기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생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사회와 유기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사회는 성장하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같다. 둘째, 사회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회는 복잡해지고 점점 분화되는 경향을 띤다. 셋째, 구조가 분화되면서 기능도 더욱 세분화된다. 넷째, 각 부분은 상호의존적이다.

# 논술시험 (인문 2)

[문제 2] <자료 1>은 한 채용기관의 면접관과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조합에 따른 채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지어 어떤 채용 패턴이 있는지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다른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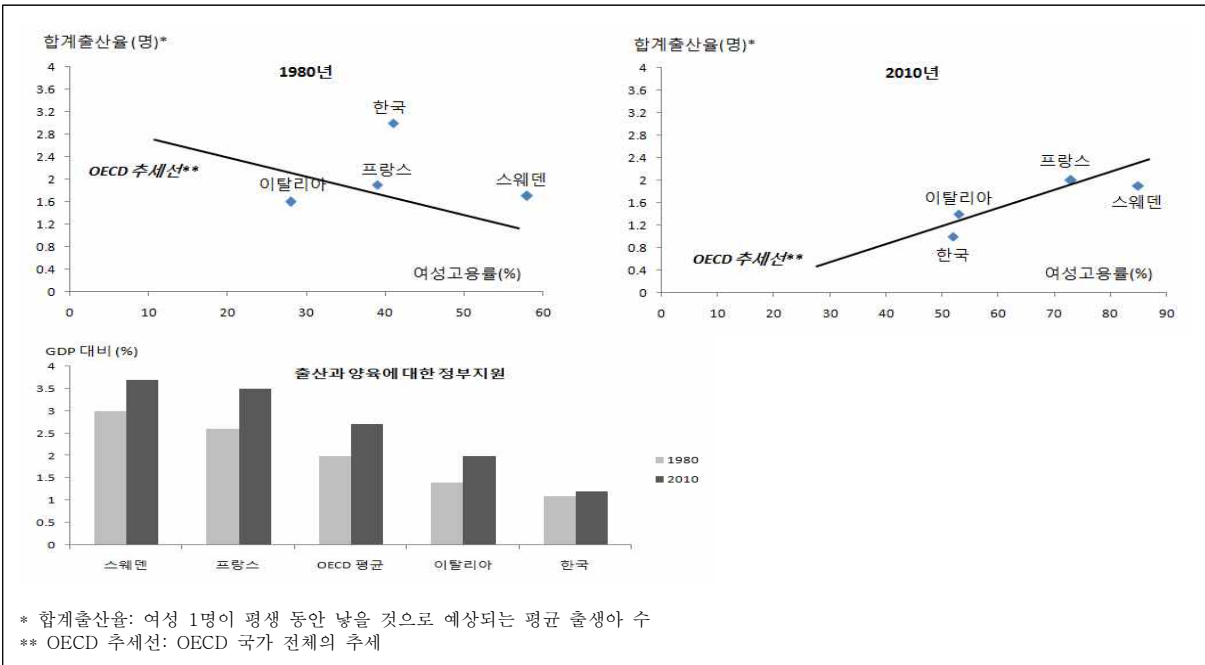
<자료 1>

면접관 출신학교		지원자 출신학교		
		A 대학	B 대학	C 대학
A 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7	14	13
B 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2	18	11
C 대학	지원자 수	100	100	100
	채용자 수	13	9	16

\* 면접관과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 및 출신대학의 수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문제 3] <자료 2>를 해석하여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30점)

<자료 2>



[문제 4] [문제 1]의 한 입장을 근거로 <보기>에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 견해를 논술하고, 또 다른 입장을 근거로 그 정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논술하시오.(20점)

<보기>

최근 정부는 00지역에 위락 시설을 갖춘, 제 2의 한류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류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긴 하나 일부 지역은 몇몇 개인의 사유지라는 점이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하여 그들이 소유하던 땅을 싼값에 국가가 사들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그 보상액을 주고 수용하였다. 그러자 K씨를 비롯한 토지소유주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 토지수용제도: 국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토지가 필요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